

거래 뚝...부동산시장 봄 성수기 '찬바람'

광주 3월 주택경기실사지수 16.1포인트 ↓...사업자 기대감 저조 2월 아파트 매매거래량 60.2% 줄어...소비 심리지수도 최저치

주택 시장도 3월을 맞아 봄철 성수기에 들어갔지만 광주·전남에는 봄바람 대신, 찬바람만 불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은 싸늘하고 입주 물량 증가에도 거래가 얼어붙으며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급등했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가격 하락세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 시장 활성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택사업자들, '시장 전망 어두워' =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3월 광주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74.2로 전월 전망치(90.3)보다 16.1포인트나 떨어졌다. 전국 전망치도 69.2에 불과해 봄철 특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중

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뿐 아니라 1년 전 같은 기간 전망치(87.8)보다도 13.6포인트나 낮아 지역 주택사업자들의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전남지역 전망치도 지난달(72.0)보다 낮은 60선(64.0)까지 주저앉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분양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경기 침체 등도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공황...매수 심리지수=국토교통부의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40건, 전년도 같은 기간(1861건)보다 1121건(60.2%)이나 줄었다. 주택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1744건에 머물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2162건)에 못 미쳤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광주지역의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8로 전월(110.6)보다 6.8포인트 떨어졌다. 광주의 1월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국토연구원이 통계를 공개한 2011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2338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600가구를 상대로 설문해 산출한 것으로, 0~94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으로 조사한 광주지역 '매수우위 지수'는 31.8로, 2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29.3) 이후 최저치다.

매수우위지수란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해 산출한 것으로, 수치가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고 시장 전망도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지역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9월

(107.7) 이후 67.7(11월)→49.6(12월)→31.9(1월)→31.8로 급락세다. 여기에 오는 5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에 5946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매도 우위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만 3518가구 집들이에 나서는데, 작년 이맘때 광주 입주 물량(1021가구)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다.

◇아파트값 하락세는 언제쯤 심리가 낮아지고 거래가 실종되는 양상이지만 아파트 값 하락세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에 견줘 0.14% 상승했다. 지난달(0.18%)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도 지난 2월 4주(25일) 기준으로 전주에 비해 0.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 남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찔끔' 하락한 수준이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5.60 (-3.63)	↓ 금리(국고채 3년)	1.83 (-0.01)
↓ 코스닥	746.70 (-1.25)	↑ 환율(USD)	1128.80 (+3.30)



신형 쏘나타 5년만에 선보여

현대차 11일부터 사전 계약
주행영상기록장치 첫 장착

쏘나타가 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선을 보인다. 현대차는 오는 11일부터 신형 쏘나타의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 이달 정식 출시도 이뤄진다.

신형 쏘나타는 지난 2014년 3월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풀체인지) 모델로, 현대차는 비올라·구조·스타일링·기술 등 4가지 요소의 조화를 디자인 근간으로 하는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트니스'(감성을 더한 스포티함)를 세단 최초로 적용했다.

기준 모델(뉴 라이즈)보다 전고도 30mm 낮아지고 휠베이스는 35mm, 전장이 45mm 각각 늘어나면서 더욱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다.

전면부는 전체적으로 매끈하고 볼륨감 있는 형상과 맞춤 정장의 주름처럼 예리하게 가장자리를 처리한 후드가 두드러진다. 주간주행등에 비점등식 크롬 재질로 보이지만 점등되면 램프로 바뀌어 빛이 투과되는 '히드라이팅 램프'가 현대차 최초로 적용됐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개인화 프로필을 탑재해 나만의 차로 설정이 가능하고 스마트키가 없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출입 및 시동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키'와 차량 내장에 장착된 전·후방 카메라 영상을 녹화하는 주행영상기록장치인 '빌트인 캠'(DVRs) 등 다양한 첨단 신기술도 적용됐다.

개인화 프로필은 여럿이 함께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디지털 키나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화면 내 사용자 선택을 통해 차량 설정을 자동으로 개인에게 맞추는 기능이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등 주요 안전·편의 사양은 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갔다.

신형 쏘나타는 4기 모델로 운영되며 모든 트림에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스트림'이 장착됐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2.0 모델 기준으로 2346만원부터 시작하고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3289만원부터 책정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남 보해매실농원으로 꽃 구경 오세요

16~17일 땅끝 매화축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보해 매실농원에서 16~17일 이틀 동안 제7회 땅끝 매화축제가 열린다.

해남군 산이던 보해 매실농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매화축제는 드넓은 농원을 가득 매운 매화꽃은 물론 깨끗한 해남군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매화 사진 찍기 대회, 매화보물찾기, 전통놀이 체험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이 열린다.

또한 해남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1979년 조성된 보해 매실농원은 14만평 규모로 1만 4000여 그루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다. 보해양조를 대표하는 매실주 '매취순'의 원료가 되는 매실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성된 매실농원은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를 갖춰 매실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보해 매실농원에서 생산된 매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매실보다 향이 진하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보해양조는 이곳에서 생산된 매실로 프리미엄 매실주인 '15년 숙성 매취순'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양상근 보해매실농원 대표는 "보해 매실농원은 매년 수만 명이 찾는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됐다"며 "보해는 해남

에 더 많은 관광객을 초대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3월 한달 동안 무료로 농원을 개방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카드수수료율 인상 자동차업계 경영위기 악화 우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지적

신용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으로 자동차업계의 경영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6일 '신용카드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내고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자동차업계에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 구매 때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

어지며 증가하고 있다"며 "조달금리 하락과 연체비용 감소 등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없지만, 인상을 강행한 것은 자동차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자동차업계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자

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혀 자칫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융·경제 이슈 무료 '금융경제강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2일~6월 28일까지 8회

다양한 금융·경제 이슈를 주제로 하는 무료 강좌가 마련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금융경제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지역민들의 경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학생,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오는 22일 첫 강사로 나서 '지금은 해석시대! 주요 경제 이슈 및 활성화 해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금융의 역할(전남대 구재운 교수·4월 5일) ▲시장경제와 한국사회의 미래(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4월 19일) ▲화폐로 보는 경제(조규현 한국은행 경제교육실·5월 10일) ▲국내 채권시장 구조와 동향(정준 키움증권 이사·5월 24일)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이흥노 GIST 교수·5월 31일) ▲북한경제의 이해와 실상(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6월 14일)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